

특별상 수상작 나의 삶을 지탱해준 부처님과의 인연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보문심(63세)

제 13회 신행수기 당선작

- ▲한국불교대학교 총무위원장(특별상)-주보문심 '나의 삶을 지탱해준 부처님과의 인연'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특별상)-서용철 '시비회 가솔수련법회'

지심귀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매일 새벽 불교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새벽예불 소리에 맞춰 향을 사르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다. 어느새 내 마음은 30여 년 전 부산 한 산사의 새벽예불을 떠올리며 아련한 그리움의 감회에 젖는다.

불교에 귀의하고, 2년 후부터 시작한 새벽예불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새벽 적막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예불소리는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박진 감동과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새벽기도는 2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예불 후 1시간 동안 드리는 관음기도는 주지스님께서 꼭 주관하셨다. 나는 기도 정진으로 차츰 신묘한 불법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원래 나는 천주교 신자였다. 처

'보문심'이란 불명도 받고, 어린이법회에 남매를 보내 불심을 닦게 했다. 남편의 사업도 날로 번창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몇 년 후 남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어 우리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몇 번이나 이혼하려고 했다. 그때 이웃 보살님이 새벽 관음기도를 권해서 다니게 된 것이 나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 즈음 양산 통도사에서 보살계 법회가 있다고 보살계를 받으라고 공양주 보살님이 일러 주셨다. 나는 보살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통도사 가는 버스를 탔다. 사흘간 <법광경> 법문을 다 듣고, 계를 받았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을 함장하고 돌면서 참 불자가 될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이 보살계 수계식에서 들은 <법광경> 법문은 그 후 나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울로 이사를 온 나는 도선사를 찾았다. 그곳은 청담 스님께서 주석하신 곳이었다. 그 즈음 나는 <마음>이라는 청담 스님의 구도집을 읽고 있었기에 감격스러웠다. 도선사를 원찰로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 되었다. 경전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다. 부산에서 <금강경> 3개월 배운 것이 전부였다. 1년 후 나는 <법화경>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만났다.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법회가 있는 날이면 오전 장사만 하고 오후에 시

천주교 신자에서 결혼 후 불교로 개종  
집안 몰락 등 좌절 새벽기도 통해 극복  
"마음공부에 푹 빠져 사니 너무 행복해요"

너지절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 새벽 교리반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직장에 출근을 했다. 어렵게 영세를 받고, 청년회에 가입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시댁이 불교집안이어서 관음후배로 혼배상사를 했다. 결혼 몇 년 후 이웃사람이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내게 했다. 그 말을 듣고 상심하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내게 항상 미안해하던 남편은 다시 성당에 나가라고 권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절에서는 가끔 염서가 왔다. 내가 어머니 대신 절의 행사에 참석했다. 어머니께서 오려 다니신 절의 행사가 불참하는 건 불효하는 것 같았다. 1년 동안 집에 가면 법당에서 절고 공양하고 오는 게 전부였다. 나는 혼자 '불교가 이런 것이 전부야 아닐 텐데...'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의 고민을 안 친정 고모님이 대각사로 데리고 갔다. 대각사는 내가 다니던 성당과 불과 백m 거리에 있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면, 성당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운동 내 마음을 휘젓고 했다. 그럴수록 나는 불교를 알고 싶어했고, 큰스님께서는 초심자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셨다. 불교신문도 구독하고 불교 서적도 읽으면서 차츰 불교에 심취해 갔다.

작되는 법회에 참석하여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경청했다. 점심도 못 먹고 참석할 때가 많았지만, 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공부 가 깊어지면서, 내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항상 의문을 가졌던 문제도 깨닫게 되었다. 불교의 '인과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고해성사를 보고난 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자꾸 죄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회의를 느꼈었다. 나는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법화행자로서의 행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나보다. 매일 집에서 <법화경> 독송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렇게 <법화경> 공부로 6년쯤 했을 때 내게 또 시련이 닥쳤다. 어떤 불사를 돕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 나는 더 이상 <법화경> 공부를 못하게 된 것이다. 그 중격으로 나는 모든 생활의 의욕을 잃고 두문불출하였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과 정진한 의욕...

이 일로 인해 나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친견하는 인연을 갖게 됐다. 선원에서 큰스님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큰스님을 뵈고 마음공부를 하고 싶습니다"했다. "너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구나"하시면서 큰스님 구도집과 법문 테이프를 열심히 공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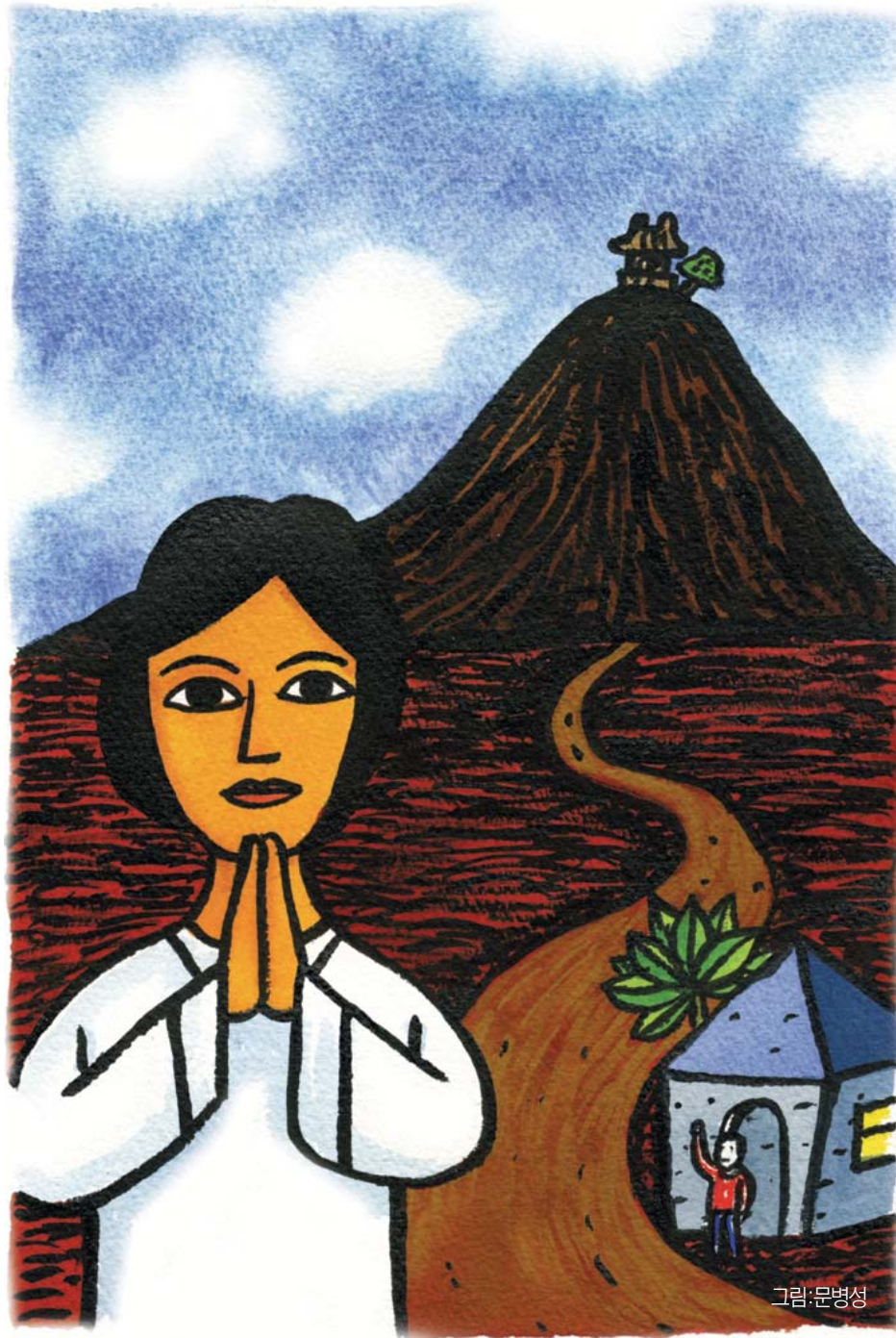


그림: 문명성

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짓누르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말 할 수 없는 편안함과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집에 와서도 밤에 잠들 때까지 큰스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다.

큰스님의 구도집과 법문테이프를 들으면서 나의 새로운 마음공부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의 <법화경> 공부도 버림이 되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었다. 그렇게 수행을 하던 몇 달 후 선원을 가려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다. 전철 타는 시간만 1시간 30분. 남편은 놀라워했다. 이렇게 먼 곳을 사흘이 멀다하고 다녔나보다.

그렇게 남편도 큰스님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법행회 회원이 되었다. 법행회 회원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남편의 마음공부도 점점 깊어졌다. 남편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면서 각박한 사회에서 나는 인간관계에서보다 새로 느끼는 종교생활에서도

본들의 훈훈한 인간미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중단된 불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참여했다. 그 불사는 불교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이었다. 처음에 반대하던 남편도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투자를 했다. 그러나 사업은 몇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중단되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절망했다.

우리 가정은 그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그 일로 인해 쪽을 찢는 날이 늘어 갔고, 나를 원망했다. 급기야 후두암 2기말이라는 진단이 나와 급히 수술을 받았다. 남편의 외로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법을 만나 마음공부를 한 남편은 마음을 풀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매일 좌선을 하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좌선하고 있던 중 비몽사몽간에 꽃비가 내리더니 화문을 쓴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나타나시고, 잠시 후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목에서 무엇을 떼면서 "아직 갈

때가 안 됐군"하면서 사라졌다고 했다. 차츰 목소리가 나오고 점점 몸이 회복되어 5년 후에는 완치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업이 중단된 후유증으로 그동안 하고 있던 가게도 처분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내 신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비록 그전같이 선원에는 못갔지만, <금강경>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게을리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인공에 맡겼다. 언젠가 이 역경에서 벗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점심시간 후 휴식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절의 법당에서 부처님께 참회하며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스스로 위안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불교방송 다보원에서 진행한 '100일 법문' 법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100번 큰스님들의 훌륭한 법문을 듣고, 나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한 느낌이 든다.

나는 요즘 매일 새벽 5시 불교방송의 새벽예불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경전공부 시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경전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다. 백팔참회문을 시작으로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계승,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을 매일 독송한다. 매주 금요일 서울 다보원에서 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49독' 기도 정진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가끔 법당에 앉아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떠했을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하면서 내 자신에 엄격하게 살았다. 나를 불법에 눈뜨게 한 여러 스승님들, 그분들 중에는 나에게 너무나 힘든 시련을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불교의 인연법을 잘 알기에 모두 다 내 탓으로 생각한다. 그런 큰 시련들이 있었기에 더욱 돈독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한다. 부친님의 무한한 가피력에 항상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여 전생과 금생의 모든 업을 소멸하고 내 생애는 좀 더 나은 삶을 받을 것을 발원한다. 오늘도 나 자신을 채찍질 한다. 마하반야바라밀!

심사평

"꾸준히 정진하는 모습 담아야"

예년에 비해 응모 편수도 적었고, 내용도 수준이 떨어져 부득이 특별상 2편만을 뽑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작 2편 모두 기부불교에 인주하지 않고 부처님을 예경 찬탄하면서 자기를 찾기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나의 삶을 지탱해준 부처님과의 인연'은 불교로 개종한 뒤 타종교를 믿으면서 가졌던 의문을 풀고, 비불교적인 신앙현상을 비판하면서 마음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그렸다. '시비회 가솔수련법회'의 경우 사찰참배기 속에 몸이 불편한 아내와의 사랑, 그리고 전법원력을 잔잔하게 그렸다.

그러나 2편 모두 대상 또는 우수상으로 뽑기에는 감동성과 문장구성력 등이 부족했다. '현대불교'가 창간 1주년부터 실시해 온 신행수기는 회를 거듭하면서 기록에서 벗어나는 발전적 모습을 보여 왔는데, 올해 좀 부진해 아쉽다. 내년을 기대해 본다.

최희희 현대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침대**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 건강침대, 장수구들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제Q (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트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백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160 엔틱침상(홍백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소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백)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대)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